

전 남

완도 소안면 전복양식 18세대 가족연봉제

기업경영 도입 농어촌 귀향 모델로

청년들 도시 이탈 막아

완도군 전복양식 어민들이 노사 경영 모델을 도입, 새로운 농·어촌 귀향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소안면에서는 부자간에 기업체의 노사계약과 같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해 청년들의 도시 이탈을 막고 있다.

가족 연봉제를 처음 시도한 황영우(58·소안면 가학리)씨는 수협에 근무하던 아들이 직장에 회의를 느껴 대도시로 이주하려 하자 자신이

경영하는 전복 양식장에 근무하면 연 5000만원의 기본급과 경영이윤 창출시 상여금을 포함한 총 6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근로자인 아들은 현재 양식장에서 자급심을 가지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수산양식 산업의 새로운 노사경영 모델은 인근의 어가에도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현재는 18세대에서 가족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에서 살던 자녀 7세대가 귀향했으며, 11세대의 젊은이들은 부모로부터 가족 연봉제로 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S방송사와 삼성

반도체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부친의 권유로 완도 청산면에 귀향한 최준호(41)씨는 전복양식으로 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씨는 “스트레스 없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되돌려주는 자연에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어촌으로 귀향하는데 어려웠던 결정을 해 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어촌으로 귀향하는 사례는 직장을 퇴직한 퇴직자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완도군의 경우 청년과 고학력자들의 귀농·귀어가 매년 증가하면서 어촌에서 어린 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생계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대의 양식산업 중심지인 완도군은 전국 전복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600여 세대에 달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어촌으로 귀향하는 사례는 직장을 퇴직한 퇴직자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완도군의 경우 청년과 고학력자들의 귀농·귀어가 매년 증가하면서 어촌에서 어린 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생계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 북항에 친수 문화공간

2014년까지 112억 들여 4만여㎡에 조성

오는 2014년 4월께 목포시 북항에 축구 경기장 4배 크기의 친수(親水)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조감도>



19일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에 따르면 북항 목포해경 뒤편 부지 4만2000㎡에 총 사업비 112억을 투입, 친수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친수 문화공간에는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 풍경을 상징하는 노을광장을 비롯해 ▲건강과 휴식을 위한 녹지 및 산책로 ▲지역행사·야외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다목적 잔디광

장 ▲지역의 역사·예술·문화 창조공간인 야외전시장·바다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친수형 수변데크 등이 조성된다.

목포 항만청은 북항을 기존 기반시

설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즐거거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 항만청 이재백 항만공사장은 “북항 북항에 친수문화공간이 조성되면 목포대교와 해양수산 복합센터, 시푸드 타운과 더불어 다양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며 “북항이 연안어업 지원항만뿐 아니라 해양항만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ee@

수도권 유통업체에 40억원 매출 성과 농협 전남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 연합사업단(시장개척팀)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수도권 유통업체 바이어를 대상으로 통합마케팅을 펼쳐 4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번 통합마케팅은 지역에서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는 감자와 양파·마늘·매실 등의 원활한 출하와 판매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연합사업단은 사업계획 설명회 품목별 납품제안을 통해 5월분부터 출하되는 ▲매실 1000t ▲보성·장흥감자 400t 물량을 농협 도매사업단에 납품하기로 하는 등 총 4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송기동기자 song@



백련사 물들인 동백꽃

강진군 백련사 동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51호)이 꽃채 떨어진 동백꽃들로 붉게 물들었다. 5.2ha 규모의 백련사 동백나무숲은 3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동백꽃들로 장관을 이룬다.

강진군 백련사 동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51호)이 꽃채 떨어진 동백꽃들로 붉게 물들었다. 5.2ha 규모의 백련사 동백나무숲은 3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동백꽃들로 장관을 이룬다. <강진군 제공>

목포~부산 고속버스 직통 신설

하루 3차례 운행 1시간 50분 단축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호남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와 금호고속 영업본부는 “오는 26일부터 목포~부산간 고속버스 직통 노선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목포~대구간 시외버스 직통 노선은 개설돼 있었으나, 부산 노선은 없어 광주나 광양을 거쳐 환승을 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목포~부산(사상)간 직통 노선은 1일 3회 운행된다.

목포발은 오전 8시20분·오전 10시·오후 2시이고, 부산발은 오전 9시30분·오후 1시10분·오후 3시 20분이다. 소요 시간은 3시간 50분. 요금은 부산시와 전남도가 현재 협의중에 있다.

이번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목포~광양간 거리가 39.6km 줄어 들고, 소요 시간도 67분(시속 100km 기준) 단축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목포에서 부산까지 직행버스로 5시간 40분이 소요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의 관광객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강진, 시행 5년만에 팀제 폐지

조직 연관성 떨어져 ... 실과체제 전환

강진군은 6월 말까지 성과중심의 ‘드림 팀제’를 폐지하고 실과체제로 전환한다. 팀제시행 5년만이다.

군은 지난 17일자로 비서실장에 윤영갑(53) 전 산림팀장을 임명하고 인사팀장, 회계팀장을 비롯한 주요 보좌관도 이르면 시일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팀제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도나 중앙부처와 조직의 연관성이 떨어

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인사와 함께 군민에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도 이르면 시일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팀제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도나 중앙부처와 조직의 연관성이 떨어

지고 성과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등 조직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군은 조직개편 TF팀을 구성해 오는 6월 말까지 팀제에서 과 체제로 전환하는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새로운 조직혁신과 함께 직원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년 5월부터 실시한 팀제는 기존 1실 12개과 56 담당을 1실 25개팀으로 개편했다.

강진진 군수는 “공무원이 제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제대로, 신명나게 할 수 있어야 군민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김삿갓’으로 널리 알려진 난고 김병연(1807~1863) 선생의 해학과 풍자의 시문학과 삶을 되돌아보는 축제가 화순에서 열린다.

김삿갓 선생 풍자의 삶 되돌아본다

화순군, 21~22일 풍류문화축제

이번 축제는 21일 김삿갓 난고 김병연 선생 종명지 고유제를 시작으로 추모제 씻김굿, 김삿갓 풍류문학 백일장, 낭독·낭송 대회, 학술 세미나, 1박2일 나그네 체험단 활

동, 김삿갓 나그네 풍류음악·국악·전통무용·가요공연 등이 이어진다.

둘째날인 22일에는 1박2일 체험단 ‘학문의 길, 나그네의 길’을 비롯

해 한국 각설이타령 대회와 시상식이 마련된다.

이현재 호남문화원장은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후기 선조들의 시대 정신 및 삶과 자연관조의 역사성, 정체성을 찾아 맥을 잇기 위해 기획했다”며 “풍류문화 문화를 가꾸어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화순의 풍류 문화관광을 재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2-232-8688)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제9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즐거움 가득한 청보리밭”

2012.4.21(토) ▶ 5.13(일) 23일간

장소 :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 (청보리밭)

문의 : 063) 560-2733 축제위원회 063) 564-9897

행사프로그램

Table with 4 columns: 구분 (Category), 프로그램 (Program), 장소 (Location), and another 구분 (Category). It lists various activities like '식전공연', '보리밭 밭갈이', '보리밭 속 모토캠프' etc.

